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조중신문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기관지

제79호 [루계 제23396호] 주제100 (2011)년 3월 20일 (일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전 남조선 현대그룹 명예회장 정주영선생을 주모하여 구두친서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전 남조선 현대그룹 명예회장 정주영선생의 서자 10돐에 즈음하여 그를 추모하는 구두친서를 보내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구두친서에서 정주영선생은 민족해와 협력의 길을 개척하고 북남판계발전과 조국통일성업을 위해 참으로 큰 일을 하였다고 하시면서 그의 명복을 기원하며 아울러 현대일기의 모든 일이 잘되기를 바란다고 하시였다.

본사기자

4월의 명절에 즐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행사 진행

태양절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된 1·8제를 즐음하여 오스트리아 원에서는 좌담회가, 베루 뜨루힐료에서는 우리 나라 도서, 사건 및 수공예품전람회개막식으로 체조끄 브라히에서는 영화감상회가 10일과 15일에 진행되었다.

전립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사건들, 선군조선을 소개하는 도서, 사건, 수공예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행사들은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오스트리아로조련행 좌익렬현

방비서는 태양절에 즐음하여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 장구한 항일혁명 투쟁을 전개하여 나라를 해방하고 조국해방전쟁과 사회주의건설을 승리적으로 이끌고 고귀한 업적은 영원불멸할 것이다.
김일성주석께서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일에 즐음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서, 사건 및 수공예품전람회를 진행하게 될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의 혼명한 령도밑에 날로 발전하는 조선의 참모습과 조선인민의 윤기와 재능이 깃든 수공예품들을 보면서 베루사람들은 조선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이번 전람회는 베루인민과 조선인민사이의 친선을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로 될 것이다.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평화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베루 뜨루힐료 시력사박물관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선군령장을 우러러 러치는 매혹의 탄성

남조선인민들의 칭송의 목소리

경애하는 장군님의 타월한 선군정치와 그에 의하여 마련된 우리 공화국의 강력한 자위적전쟁역제력을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고 있다.

선군령과 평화는 이 놀라운 현실앞에서 남조선인민들은 경쟁을 금지하면서 위대한 선군령장에 대한 다합없는 칭송의 목소리를 한껏 터치고있다.

서울의 한 기업가는 동료들과 만난 자리에서 불폐의 선군정치로 민족의 안녕을 지키고 통일과 번영의 앞길을 열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위대한 선군령장으로 높이 칭송하면서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평하였다.

«나는 지금 경제와 기업을 살릴 수 있는 출로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 우리는 미국에 기대를 걸지 말아야 한다.

우리 아남민중이 의해해야 할 곳은 바로 이북이다. 북에는 위대한 선군정치가 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신다. 그이께서는 누구보다 겨레를 사랑하고 평화를 키우려 여기신다. 그래서 선군의 가치를 높이 드시고 이를 불폐의 강국으로 만드시고 국민으로부터 평화를 제공하시는 위대한 장군님 계시여 통일은 문제 없다.»

희세의 선군령장이 신 경에 하는 장군님에 대한 이렇듯 다합없는 경모의 정은 남조선인민을 누구의 가슴에서나 뜨겁게 분출하고있다.

언제인가 서울대학교에서 진행된 시국토론회장에서 있은 일이었다.

남조선의 여러 대학 교수들의 열띤 토론이 한창 진행되다가 돌연히 화제는 공화국북부에 대한 통경의 이야기로 번져졌다.

먼저 말미리를 맨 고려대학교의 한 교수는 『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이다. 선

빛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국력이 비상히 강화되어 민족을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게 되었을 때를 의미한다.» 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달로 지킬수 없는것이 존엄이고

구름이 이룰수 없는것이 번영이다.

국력은 종래에서 나온다. 이북은

강군이 있어 강국이다. 김정일장군님

의 선군령도로 이북은 세상에

이루어졌다. 이북은 보유한 최강의 무기는 특유의 정신력이다.

이북은 자기 수령, 자기

자족용사가 되는것을 제일 생명으로,

자랑으로 여긴다. 미국은 이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이북은 천출명장의 형도파라 미

국을 총 한방 쏘지 않고 이기는 승

전의 력사를 엮어가고있다. 선군의

침략의 총검을 제압하시는

위대한 장군님 계시여 통일은 문제

이루어졌다.»

그의 말은 시국토론회에 참가한

모든 교수들의 지지와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홍분된 토론회 참가자들은

저마다 자리를 차고 일어나

격동된 어조로 자기의 심정을 털

었다.»

전남대학교의 한 교수는 『파시

들은 말이다. 약소국의 설움을 안

고 피눈물을 뿐이며 가엾게 살던

우리 민족이 오늘은 어떤 지위에

있다. 그래서 선군의 가치를 높이 드

시고 이를 불폐의 강국으로 만드

시고 미국을 향해 전쟁을 일으키

지 못하도록 꼭 놀라놓고신다.

정말 그분의 선군정치가 아니었다면 조선반도는 그 어느 지역보다 먼저 전란에 참을것이었다.

먼저 말미리를 맨 고려대학교의

한 교수는 『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김정일장군님의 존엄과 영예가

장군님 C N C (14)

L A N 제 계 도 물 론

CNC화에서 앞선 공장들에서는 통합생산체계의 높은 단계에 올라서고 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극진한 사랑속에서 통합생산체계를 이루는 공장일군들의 자부는 더없이 큰것이었다.

통합생산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생산지휘실에 장군님을 모신 일군들은 격정으로 설레였다.

통합생산지휘체계망의 운영과정이 눈앞에 펼쳐져있었다.

한쪽에서는 컴퓨터지원설계가 들어가고 또 한쪽에서는 기대집중판리프로그램과 컴퓨터생산지휘체계가 동작하고 있었다.

컴퓨터들이 임의의 기대를 감시하게 되어있는가 하면 필요에 따라 공정도 바꿀 수 있게 되어있었다.

다채로운 화면들이 흘러가는 속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과 일군들사이에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회면으로 다 감시하오?»

«예, 임의의 설계를 선택하여 동작을 감시할수도 있고 프로그램을 전송하여 그대로 동작을 수행하게 할수도 있습니다.»

«기대의 모든 정보들은 물론 전용설성자료들도 알아볼수 있소? 랜하면 기대품의 무책임성도 발견할수 있는가 말이요.»

«예, 그렇습니다. 기대공의 무책임성, 설비고장정형을 다 뽑아낼수 있습니다.»

«그럴겠지.»

«전법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여러분에게 CNC기계를 한 사람에게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9대의 CNC설비를 4명이 돌리고 있습니다.»

«기계가 오동작하는 경우에도 여기에서 처리하겠지?»

«예, 뽑아볼수 있습니다. 지금 저 동무가 개별적으로 뽑아내고 있습니다. 저기에 나타나는 수사들을 통하여 기계가 오동작하는것들, 반복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지배인, 기사장,

변이 나는 혜의 12월을 북방의 현지지도의 길에서 보내시는 장군님의 혁명시간은 조국의 전도를 밝게 비추고 있었다.

최첨단돌파전의 선두에 서있는 공장을 모든 면에서 표본으로 되게 하자면 깨우쳐주실 내용도 많았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느 한 공장의 프레스 및 열처리장 컴퓨터조종실에 들리시었을 때였다.

크고작은 프레스들을 컴퓨터화면으로 보면서 종합적으로 조종하고있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져있었다.

저 프레스는 800kN랑크프레스이고 판란색을 가진 저 프레스는 400t입니다. 그리고 저것은 200t프레스입니다. 저는 지배인의 설명을 들으면서 화면에 나타나는 현장을 보시는 장군님의 눈가에 미소가 비끼고 있었다.

«국가과학원 수학연구소동무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한것입니다. 열처리를 자동조종하게 되어있습니다. 10개의 로를 모두는 컴퓨터로 종합자동조종할수 있습니다. 불합격이 거의나 없습니다.»

«좋소.»

장군님께서는 설명을 구체적으로 듣고

CNC화는 말도

인간에게 고백처럼 소중한 감정이 없을것이다.

것들을 감시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별기대수정도 하오?»

«예, 수정합니다. 봉사기로 개별적설비

들의 CNC장치내용을 뺏습니다. 뺏아들여

서 수정해 가지고 다시 내보내면 개별적설

비들이 그것을 인식합니다.»

«프로그램을 여기서 수정한다?»

수정하다 잘못하면 어찌는가. 수정해

야 할 일이 있으면 기술과에서 걸로

하고 해야 하지 않소?»

«...»

«수정하고싶어도 자체로 하지 말고 기술부서에 제기하게 해야 하지 않소. 제한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예.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세부적인것들은 운영하면서 쉽게 고칠수 있을것입니다. 통합생산지휘체

체가 그만하면 잘되였소.»

제가 주시면서도 해놓은 일을 높이 평가해주시니 높내 감각하여 이야기에 끼어드는 일군도 있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CAD/CAM제

(컴퓨터에 의한 설계 및 공정작성체계)

에 LAN제체(기부당체계) 까지 다 해야 한다고 하셨던문에 이 동무들이...»

이제는 도의 일군들도 CNC전문술어를

자연스럽게 말하는것이 좋으신듯

장군님께서는 만면에 활동한 미소를 지으시며 대정하게 말씀하시였다.

«물론 LAN제체까지 해야 합니다.

물론 LAN제체제이니까.»

공장의 일군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과정에 데리고다니시는 일군들도 CNC에 높이

도록 하시려는것이 그이의 의도이기도

하였다.

제가 주시면서도 해놓은 일을 높이 평가해주시니 높내 감각하여 이야기에 끼어드는 일군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시면서도 해놓은 일을 높이 평가해주시니 높내 감각하여 이야기에 끼어드는 일군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시면서도 해놓은 일을 높이 평가해주시니 높내 감각하여 이야기에 끼어드는 일군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시면서도 해놓은 일을 높이 평가해주시니 높내 감각하여 이야기에 끼어드는 일군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시면서도 해놓은 일을 높이 평가해주시니 높내 감각하여 이야기에 끼어드는 일군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시면서도 해놓은 일을 높이 평가해주시니 높내 감각하여 이야기에 끼어드는 일군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시면서도 해놓은 일을 높이 평가해주시니 높내 감각하여 이야기에 끼어드는 일군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시면서도 해놓은 일을 높이 평가해주시니 높내 감각하여 이야기에 끼어드는 일군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시면서도 해놓은 일을 높이 평가해주시니 높내 감각하여 이야기에 끼어드는 일군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시면서도 해놓은 일을 높이 평가해주시니 높내 감각하여 이야기에 끼어드는 일군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시면서도 해놓은 일을 높이 평가해주시니 높내 감각하여 이야기에 끼어드는 일군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시면서도 해놓은 일을 높이 평가해주시니 높내 감각하여 이야기에 끼어드는 일군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시면서도 해놓은 일을 높이 평가해주시니 높내 감각하여 이야기에 끼어드는 일군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시면서도 해놓은 일을 높이 평가해주시니 높내 감각하여 이야기에 끼어드는 일군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시면서도 해놓은 일을 높이 평가해주시니 높내 감각하여 이야기에 끼어드는 일군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시면서도 해놓은 일을 높이 평가해주시니 높내 감각하여 이야기에 끼어드는 일군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시면서도 해놓은 일을 높이 평가해주시니 높내 감각하여 이야기에 끼어드는 일군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시면서도 해놓은 일을 높이 평가해주시니 높내 감각하여 이야기에 끼어드는 일군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시면서도 해놓은 일을 높이 평가해주시니 높내 감각하여 이야기에 끼어드는 일군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시면서도 해놓은 일을 높이 평가해주시니 높내 감각하여 이야기에 끼어드는 일군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시면서도 해놓은 일을 높이 평가해주시니 높내 감각하여 이야기에 끼어드는 일군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시면서도 해놓은 일을 높이 평가해주시니 높내 감각하여 이야기에 끼어드는 일군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시면서도 해놓은 일을 높이 평가해주시니 높내 감각하여 이야기에 끼어드는 일군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시면서도 해놓은 일을 높이 평가해주시니 높내 감각하여 이야기에 끼어드는 일군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시면서도 해놓은 일을 높이 평가해주시니 높내 감각하여 이야기에 끼어드는 일군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시면서도 해놓은 일을 높이 평가해주시니 높내 감각하여 이야기에 끼어드는 일군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시면서도 해놓은 일을 높이 평가해주시니 높내 감각하여 이야기에 끼어드는 일군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시면서도 해놓은 일을 높이 평가해주시니 높내 감각하여 이야기에 끼어드는 일군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시면서도 해놓은 일을 높이 평가해주시니 높내 감각하여 이야기에 끼어드는 일군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시면서도 해놓은 일을 높이 평가해주시니 높내 감각하여 이야기에 끼어드는 일군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시면서도 해놓은 일을 높이 평가해주시니 높내 감각하여 이야기에 끼어드는 일군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시면서도 해놓은 일을 높이 평가해주시니 높내 감각하여 이야기에 끼어드는 일군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시면서도 해놓은 일을 높이 평가해주시니 높내 감각하여 이야기에 끼어드는 일군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시면서도 해놓은 일을 높이 평가해주시니 높내 감각하여 이야기에 끼어드는 일군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시면서도 해놓은 일을 높이 평가해주시니 높내 감각하여 이야기에 끼어드는 일군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시면서도 해놓은 일을 높이 평가해주시니 높내 감각하여 이야기에 끼어드는 일군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시면서도 해놓은 일을 높이 평가해주시니 높내 감각하여 이야기에 끼어드는 일군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시면서도 해놓은 일을 높이 평가해주시니 높내 감각하여 이야기에 끼어드는 일군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시면서도 해놓은 일을 높이 평가해주시니 높내 감각하여 이야기에 끼어드는 일군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시면서도 해놓은 일을 높이 평가해주시니 높내 감각하여 이야기에 끼어드는 일군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시면서도 해놓은 일을 높이 평가해주시니 높내 감각하여 이야기에 끼어드는 일군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시면서도 해놓은 일을 높이 평가해주시니 높내 감각하여 이야기에 끼어드는 일군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시면서도 해놓은 일을 높이 평가해주시니 높내 감각하여 이야기에 끼어드는 일군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시면서도 해놓은 일을 높이 평가해주시니 높내 감각하여 이야기에 끼어드는 일군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시면서도 해놓은 일을 높이 평가해주시니 높내 감각하여 이야기에 끼어드는 일군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시면서도 해놓은 일을 높이 평가해주시니 높내 감각하여 이야기에 끼어드는 일군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시면서도 해놓은 일을 높이 평가해주시니 높내 감각하여 이야기에 끼어드는 일군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시면서도 해놓은 일을 높이 평가해주시니 높내 감각하여 이야기에 끼어드는 일군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시면서도 해놓은 일을 높이 평가해주시니 높내 감각하여 이야기에 끼어드는 일군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시면서도 해놓은 일을 높이 평가해주시니 높내 감각하여 이야기에 끼어드는 일군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시면서도 해놓은 일을 높이 평가해주시니 높내 감각하여 이야기에 끼어드는 일군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시면서도 해놓은 일을 높이 평가해주시니 높내 감각하여 이야기에 끼어드는 일군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시면서도 해놓은 일을 높이 평가해주시니 높내 감각하여 이야기에 끼어드는 일군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시면서도 해놓은 일을 높이 평가해주시니 높내 감각하여 이야기에 끼어드는 일군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시면서도 해놓은 일을 높이 평가해주시니 높내 감각하여 이야기에 끼어드는 일군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시면서도 해놓은 일을 높이 평가해주시니 높내 감각하여 이야기에 끼어드는 일군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시면서도 해놓은 일을 높이 평가해주시니 높내 감각하여 이야기에 끼어드는 일군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시면서도 해놓은 일을 높이 평가해주시니 높내 감각하여 이야기에 끼어드는 일군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시면서도 해놓은 일을 높이 평가해주시니 높내 감각하여 이야기에 끼어드는 일군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시면서도 해놓은 일을 높이 평가해주시니 높

공동사설의 과업을 받들고 새로운 평양속도를 창조하며 기세드높이 전진

평양시 10만 세대 살림집 건설장에서

비상한 창조정신으로 높은 공사실적을

조선인민군 김성덕 소속 부대에서

수도의 10만세대 살림집 건설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김성덕 소속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이 맡은 살림집 건설에서 전례없는 혁신을 창조할 기세로 공사속도를 높이고 있다.

중요대상건설을 다그쳐 끝낼 때 대한 공동사설의 전투적파업을 밟았고 살림집건설에서 백두산영강공주의 위용을 남김 없이 펼쳐가는 군인건설자들의 협력적인 투쟁에 의하여 부대가 맡은 살림집공사를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이 성과는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수도건설구상을 앞장에서 발들어나려는 부대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의 혁명적열의와 비상한 창조정신이 암암리에 자랑한 결실이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평양시건설은 단순히 살림집이나 짓고 거리를 형성하는 경제실무적문제가 아니라 김일성조국의 존엄, 사회주의조선의 권위와 관련되는 중요한 정치적문제입니다.』

부대 앞에 달려진 아름찬 공사파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건설기계들의 가동률을 높이면서 필요한 자재를 모든 공정수행에 지정없이 보장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우기 수십개 호동의 다른 축살림집건설을 여러 곳에서 동시에 내밀어야 하는 조건에 풀제가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하지만 부대의 지휘관들은 당시 결심하며 우리는 한다는 철석의 신념을 안고 공사작전과 지휘를 치밀하게 하고있다.

울해에 들어와 부대가 건설하는 살림집호동들에서 콩크리트혼합기들이 일제히 동음을 울리며 기운차게 가동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월말이였다. 아직은 콩크리트트리치기에 불리한 날씨였다. 하지만 날씨가 풀리기 전에 부대적으로 공사준비를 빙틈없이 갖추어놓은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이였다.

그때 부대의 책임일꾼들은 공사를 중단없이 추진하기 위해 하루종일 힘들게 헌신하였다. 그리고 모든 공사를 텁체적으로 내밀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춘 군인건설자들과 공사장마다에서 혁명적인 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높은 공사실적을 기록하였다.

그후 자체로 전문건설단위

못지 않은 만든 기공구들이 마련되고 온 부대의 관심이 건설장으로 집중되는 속에 구조물의 굳힐시간을 획씬 줄일 수 있는 경화촉진제도 확보되었다.

그뿐이 아니다. 부대에서는

김원일소속부대와 조수련소속부대를 비롯한 많은 군인건설자들이 풀제로 공사성과를 확대하며 기세를 올리고 있다. 살림집건설에서 공격점의 기수가 될 결의하고 떨쳐나선 김원일소속부대의 지휘관들과 조수련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혁명적열정에 의해 가까운 앞날에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건설설계도를 수송하여 풀조콩크리트트리치기를 다그침으로써 단계별사

장을 빙틈없이 하였다. 그리

고 모든 공사를 텁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자재를 앞세워 보장하기 위한 분담안도 구체적으로 세웠다.

그후 자체로 전문건설단위

못지 않은 만든 기공구들이

마련되고 온 부대의 관심이

건설장으로 집중되는 속에 구

조물의 굳힐시간을 획씬 줄일

수 있는 경화촉진제도 확보되었다.

그뿐이 아니다. 부대에서는

김원일소속부대와 조수련소속부대의 지휘관들과

조수련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혁명적열정에 의해 가까운 앞날에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건설설계도를 수송하여 풀조콩크리트트리치기를 다그침으로써 단계별사

장을 빙틈없이 하였다. 그리

고 모든 공사를 텁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자재를 앞세워

보장하기 위한 분담안도 구체

적으로 세웠다.

그때 부대의 책임일꾼들은

공사를 텁체적으로 내밀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춘 군

인건설자들과 공사장마다에서

혁명적인 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높은 공사실적을 기록하였다.

그제 자체로 전문건설단위

못지 않은 만든 기공구들이

마련되고 온 부대의 관심이

건설장으로 집중되는 속에 구

조물의 굳힐시간을 획씬 줄일

수 있는 경화촉진제도 확보되었다.

그제 자체로 전문건설단위

못지 않은 만든 기공구들이

마련되고 온 부대의 관심이

건설장으로 집중되는 속에 구

조물의 굳힐시간을 획씬 줄일

수 있는 경화촉진제도 확보되었다.

그제 자체로 전문건설단위

못지 않은 만든 기공구들이

마련되고 온 부대의 관심이

건설장으로 집중되는 속에 구

조물의 굳힐시간을 획씬 줄일

수 있는 경화촉진제도 확보되었다.

그제 자체로 전문건설단위

못지 않은 만든 기공구들이

마련되고 온 부대의 관심이

건설장으로 집중되는 속에 구

조물의 굳힐시간을 획씬 줄일

수 있는 경화촉진제도 확보되었다.

그제 자체로 전문건설단위

못지 않은 만든 기공구들이

마련되고 온 부대의 관심이

건설장으로 집중되는 속에 구

조물의 굳힐시간을 획씬 줄일

수 있는 경화촉진제도 확보되었다.

그제 자체로 전문건설단위

못지 않은 만든 기공구들이

마련되고 온 부대의 관심이

건설장으로 집중되는 속에 구

조물의 굳힐시간을 획씬 줄일

수 있는 경화촉진제도 확보되었다.

그제 자체로 전문건설단위

못지 않은 만든 기공구들이

마련되고 온 부대의 관심이

건설장으로 집중되는 속에 구

조물의 굳힐시간을 획씬 줄일

수 있는 경화촉진제도 확보되었다.

그제 자체로 전문건설단위

못지 않은 만든 기공구들이

마련되고 온 부대의 관심이

건설장으로 집중되는 속에 구

조물의 굳힐시간을 획씬 줄일

수 있는 경화촉진제도 확보되었다.

그제 자체로 전문건설단위

못지 않은 만든 기공구들이

마련되고 온 부대의 관심이

건설장으로 집중되는 속에 구

조물의 굳힐시간을 획씬 줄일

수 있는 경화촉진제도 확보되었다.

그제 자체로 전문건설단위

못지 않은 만든 기공구들이

마련되고 온 부대의 관심이

건설장으로 집중되는 속에 구

조물의 굳힐시간을 획씬 줄일

수 있는 경화촉진제도 확보되었다.

그제 자체로 전문건설단위

못지 않은 만든 기공구들이

마련되고 온 부대의 관심이

건설장으로 집중되는 속에 구

조물의 굳힐시간을 획씬 줄일

수 있는 경화촉진제도 확보되었다.

그제 자체로 전문건설단위

못지 않은 만든 기공구들이

마련되고 온 부대의 관심이

건설장으로 집중되는 속에 구

조물의 굳힐시간을 획씬 줄일

수 있는 경화촉진제도 확보되었다.

그제 자체로 전문건설단위

못지 않은 만든 기공구들이

마련되고 온 부대의 관심이

건설장으로 집중되는 속에 구

조물의 굳힐시간을 획씬 줄일

수 있는 경화촉진제도 확보되었다.

그제 자체로 전문건설단위

못지 않은 만든 기공구들이

마련되고 온 부대의 관심이

건설장으로 집중되는 속에 구

조물의 굳힐시간을 획씬 줄일

수 있는 경화촉진제도 확보되었다.

그제 자체로 전문건설단위

못지 않은 만든 기공구들이

마련되고 온 부대의 관심이

건설장으로 집중되는 속에 구

조물의 굳힐시간을 획씬 줄일

수 있는 경화촉진제도 확보되었다.

그제 자체로 전문건설단위

못지 않은 만든 기공구들이

마련되고 온 부대의 관심이

건설장으로 집중되는 속에 구

조물의 굳힐시간을 획씬 줄일

수 있는 경화촉진제도 확보되었다.

그제 자체로 전문건설단위

못지 않은 만든 기공구들이

마련되고 온 부대의 관심이

건설장으로 집중되는 속에 구

조물의 굳힐시간을 획씬 줄일

수 있는 경화촉진제도 확보되었다.

그제 자체로 전문건설단위

못지 않은 만든 기공구들이

마련되고 온 부대의 관심이

건설장으로 집중되는 속에 구

조물의 굳힐시간을 획씬 줄일

수 있는 경화촉진제도 확보되었다.

그제 자체로 전문건설단위

못지 않은 만든 기공구들이

마련되고 온 부대의 관심이

